

CVC 우회투자·SPC 꼼수보증 제동... 대기업 탈법 규제 강화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조합 통한 우회투자 차단
SPC 매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친족분리 하점·사익편취 규율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활용한 우회 투자와 특수 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한 꼼수 채무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범법 차단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대표적 맹점으로 지적되던 친족독립경영 제도 역시 개정돼 규제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정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열회사나 총수 일가 지분 회사의 투자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CVC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LP)으로 참여해 동일인 출자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규제 면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해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제도로 보완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만 금지되다 보니, SPC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계열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사가 이 SPC의 채무를 인수하는 꼼수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허점을 노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후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계열회사 임원으로 복귀하려다, 해당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를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했으며,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I로 복지 누락가구 찾아 선제 발굴

국민연금·서울시복지재단 등 협약
AI 전화 안내·무서류 신청 도입
전력사용 분석해 부정수급 감시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선제적 에너지 복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울시복지재단,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공공데이터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는 수혜 대상자가 직접 자격을 입증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복지 정보에 어두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취약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과 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체계'로



한국전력공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으로 한전은 ▲AI 전화를 통한 대상 선제 발굴 ▲서류 없는 신청 ▲전력 사용량 AI 검증으로 이어지는 복지 지원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우선 유관기관의 행정 데이터와 한전의 고객 정보를 매칭해 복지 할인 누락 가구를 찾아낸 뒤,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돌봄 전화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AI 상담사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고객 특성별 맞춤형 복지 대화 시나리오도 공동 개발할 계획

이다.

복잡했던 신청 절차도 완전히 바뀐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고객이 단 한 번만 동의하면 증빙 서류 없이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검증되는 '서류 없는 신청'이 구현된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확인하던 현장 조사 방식에는 지능형 검증 체계가 도입된다. 한전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의 사업장 정보와 원격검침인프라(AMI)의 실시간 전력 사용 패턴을 AI로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 가구나 휴·폐업 복지시설을 상시 감시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적 복지의 한계를 데이터와 기술로 극복한 혁신 사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Energy AI 역량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해신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뉴시스

항만 하역부터 운영까지 AI가 맡는다

해수부, '피지컬 AI 항만 전략' 공개

정부가 국가 주요시설인 항만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이 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효과를 꾀하는 것. 해양수산부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공개했다.

피지컬 AI 항만은 크레인과 무인이송 장비 등 각종 하역 장비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차세대 스마트 항만을 가리킨다. 나아가 AI가 항만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물류 흐름과 작업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가량 향상시키고, 항

만장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우리 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피지컬 AI 항만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도·이행 기반 정비 등이다.

우선 항만 크레인과 무인이송장비 등 하역장비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화 기술이 개발된다. 고위험 작업으로 꼽히는 컨테이너 고정장치 체결이나 선박 계류 작업까지 무인화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동시에 항만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광양항에는 기술 실증과 인증을 담당할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도 추진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백꽃 유산균 활용 탈모 완화 샴푸 상용화

국립생물자원관, 엑소좀 항염효능 규명
염증 유발물질 생성 90%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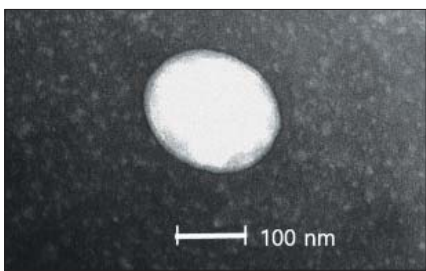
우리 자생 생물자원인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활용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샴푸가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가가 확보한 생물 자원 기술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거쳐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진 모범 사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3일 자생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우수한 항염 효능을 규명하고, 해당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해 탈모 완화 샴푸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김치 등 다양한 발효식품에서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배양액에서 추출한 세포 분비 나노 입자 성분인 '엑소좀'이 대표적인 염증 유발 물질인 산화질소와 사이토카인 IL-6의 생성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단백질과 핵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엑소좀이 탁월한 항염·항산화 기능성 소재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0월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된 신규 유산균 균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DB1 및 이의 엑소좀을 이용한 항염증용 조성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025년 11월 화장품 전문기업인 바오젠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보유 기술과 접목하면서 최종적으로 탈모 완화 샴푸 제품을 개발해 냈다. 바이오 기



유산균 엑소좀의 전자현미경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술과 민간 기업의 가공 역량이 시너지를 낸 해당 제품은 이달 중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개발 성과는 국가가 확보한 생물 자원의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제품 출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과 응용 연구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하반기 신입사원 229명 채용

대졸수준 지원서 내달 6일까지 접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확보를 위해 하반기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22일부터 '2026년도 제3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총 선발 인원은 229명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199명을 선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별도 전형으로 보훈특별전형 20명, 사회형평전형 10명을 각각 나누어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나이에 제한이 없어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8월 6일 오후 3시까지 한수원 채용 누리집(www.khnp.co.kr/recrui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대졸수준 신입직원 등을 포함해 총 263명의 신규 채용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하반기 중 대졸·고졸수준 신입, 경력직 채용 등 추가적인 채용이 예정돼 있어, 올해 연간 채용 규모는 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